

1940년대 초기 滿洲 移民文學 研究*

- 『滿洲詩人集』·『滿鮮日報』 문예란 소재 작품 연구 서설 -

吳 養 鎬**

〈차 례〉

- | | |
|--------------------|-------------------------|
| I. 「滿洲詩人集」과 滿洲移民文學 | 1. 1940년대 滿洲移民文學 認識의 시각 |
| II. 在滿朝鮮族文學研究의 문제점 | 2. 亡命文學, 移民文學의 개념 |

I. 「滿洲詩人集」과 滿洲移民文學

〔滿洲詩人集〕은 1942년(康德, 9년) 滿洲와 吉林에서 간행된 시집이다. 이 시집에 수록된 작품은 모두 한국어로 된 시이다. 우리는 이 시집의 이러한 점에서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주지하듯이 당시의 吉林은 滿洲國의 영토였고, 만주국은 日本의 조종을 받던 나라였다. 그러나 [만주시인집]에는 그 때의 그런 정서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물론 이런 문제는 이 글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소상히 밝혀질 내용이다. 하지만 우리가 우선 착목하는 점은 1942년이란 시점에서 어떻게 한국어의 內包를 손상없이 살린 이러한 작품집을 간행할 수 있었는가란 점이다.

한글로 쓰여진 시집은 한국인을 독자로 한다는 말이고, 한국인이 독자인

* 인천대학교 교수

** 이 논문은 1993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 대학부설연구소 지원 공모과제 연구비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말은 한국인의 정서와 감정을 다룬다는 뜻이 아닌가. 그렇다면 이때 한국인의 정서란 어떤 것일까. 막연한 추측이나 몇 가지 사례로 단정할 수는 없다. 면밀히 따진 후 할 말이다. 하지만 이 시집을 대하는 독자라면 누구나 받는 언어의 성육과정(Incarnation)은 새로운 땅, 만주에 대한 기대와 호기심, 국권 상실과 이주, 막연한 이상, 향수, 표박 등의 문제가 [만주시인집]의 대체적인 문학성이라는 판단을 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정신적으로는 어떤 예측에서 벗어난 세계에 있을 때 가능한 일이 아닐까.

만주 천지가 일본인 천지이고, 만주국은 그 큰 덩치와는 달리 문자와 문화를 잃은 국가였고, 우리는 그런 나라와 함께 대동아공영권으로 일본에 묶인 식민지민이었으니 [滿洲詩人集](1942)에서 쉽게 잡히는 이런 문제는 우리를 긴장하게 한다. 이 시집이 당시의 시적 外延과는 다른 문제가 있고, 그런 포에지는 한국 서정시의 지속성에서 결코 벗어나 있지 않다는 가설이 서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작품성은 한국문학의 중심적 맥락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는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¹⁾ [滿洲詩人集] 研究의 출발은 전적 이런 가설에 근거를 둔다. 1942년이라면 이미 조선도, 조선인도 존재하지 않던 시대이다. 한반도 내에서 간행되던 어떤 간행물에도 온전한 조선인의 이름이 존재할 수 없었던 시기가 1942년이다. 조선은 이미 오래 전에 일본에 합병되고, 그런 기정사실에 따라 조선인은 일본 신민이 되었고, 한반도는 日本帝國의 영토로서 제2차 세계대전의 전진기지로 편입되던 게 1940년대초의 민족사이다.

[만주시인집]에 시를 발표하고 있는 시인은 柳致環, 尹海榮, 申尙實, 宋鐵利, 趙鶴來, 金朝奎, 咸亨洙, 張起善, 蔡禎麟, 千青松, 朴八陽 등 11명이다. 이 중 유치환과 함형수는 이미 1930년대 중반부터 서울 문단에 이름이 알려진 문인이고, 윤해영은 유명한 가곡 〈先驅者〉의 작사자이며, 박팔양은 1921년 鄭芝溶, 金華山 등과 시동인지 {搖籃}에서 활동한 후기 九人會 멤버이다. 김조규도 국내에서 문학 활동을 하던 시인이다. 그리고 송철리, 조학래, 천청송 등은 당시의 滿鮮日報에 많은 시를 발표하고 있던 만주 출신 문인들이다.²⁾

1) 吳養鎬, [韓國文學과 間島](문예출판사, 1988) 참조.

2) <한선일보 문예란 소재시 발췌본> 참조.

이 밖의 문인들은 피난의 땅에서 새로운 시의 진로, 초현실주의 등을 시험하던 청년 문사였다.³⁾ 이것은 팔목할 만한 문학사적 사실이 아닐 수 없다. 사실이 이러하지만 이 사화집에 대한 논의는 아직 어느 누구도 한 바가 없다. 이유는 간단하다. 첫째는 이런 합동 시집이 있다는 사실을 몰라 논의의 기회가 없었다고 볼 수 있고, 둘째는 “1942년의 만주라면, 굳이 자료를 검토할 가치도 없다. 당시의 만주국은 바로 일본의 꼭두각시 정부가 아닌가”와 같은 고정관념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진술처럼 [만주시인집]의 문학적 내포는 그렇지 않은 데서 출발하고 있다. 주지하듯이 만주국은 만주족, 한족, 조선족, 몽고족으로 이루어진 국가였다. 만주란 땅이 주로 이런 민족에 의해 지배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본이 대륙을 침범하면서 이 민족들은 피지배민족으로 밀려났다. 표면으로는 五族協和지만 그것은 실상을 호도하던 말이고, 만주족을 비롯한 세 종족은 일본의 통치를 만주국이라는 신생국을 통해 받아야 했다. 특히 조선족은 국가를 잃었다는 점에서 한족이나 몽고족과 또 다른 사정에 놓인 민족이었다. 하지만 우리는 만주족처럼 문자를 잃고, 문화를 내버린 족속은 아니었다. 만주족이 자기영토에 나라를 세우고 있다는 사실에서는 한족과 다를 바 없지만 그들의 국가가 문화적으로는 한족에 예속되었고, 정치적으로는 일본에 속박된 상태란 점에서는 우리와 달랐다. 우리 조선족은 잃어버린 국가와는 달리 고유의 문화는 유지하고 있었다. 이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지금 우리가 대하는 이런 [만주시인집]과 같은 자료이다. 개별적인 작가론에서 다루겠지만 이 시집이 지닌 문학성을 점검한다는 취지에서 다음 한 편의 시를 먼저 읽어 보자.

도라지 피면 八月도 피고
 八月이 피면 향수도 피드라
 산
 물
 길
 돌쇠
 갓난이

3) [만선일보]문예란을 통하여 초현실주의시운동을 펼친 김복원, 강욱, 신동철 등이 그런 예이다

삼살개

하염없이 쓰러보는 파-란 꽃송이에
무지개 마냥 아롱지는 홀려간 마을

그러나 —

도라지 지면 八月도 지고
八月이 지면 향수도 지드라

송철리 <도라지>〔만주시인집〕, p.26.)

도라지는 우리 민족의 원천 심상을 환기하는 꽃이다. 도라지가 불러일으키는 정과 한이 아름다운 언어의 무늬에 의해 민족 정서의 전형을 이룬다. 간결한 시행 역시 도라지의 심상과 짝이 맞다. 그리고 시편을 뒤덮고 있는 짙은 향수는 회상체의 문맥으로 적절한 감정을 이끌어 낸다. 고향에서의 아름다운 추억과 비참한 현실 사이의 단절이 회상에 의해 효과적으로 살아 나기 때문이다.

이런 예에서 1940년대의 우리 민족은 정치적으로는 비록 국권을 잃었지만, 문화적으로는 주권을 잃지 않은 것을 발견한다. 따라서 우리는 1940년대 전반의 한국의 정체성(Identity)을 民族의 개념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만주시인집]은 이러한 문화적 자리에 서 있다.

국가는 존재하지 않고, 민족만 존재하던 시대, 오족협화의 시대 기운 속에 민족 자체의 운명이 소멸되어 가던 시대가 1940년대 초이다. 그런 시대의 만주 이민 문학을 어떻게 인식해야 하는가 하는 점은 참으로 난감한 문제임엔 틀림없다. 그러나 시대에 문학 작품을 대입하면 문학의 의미는 가벼워지고, 문학 외적 문제만 무거워진다. 그렇다면 문학은 무엇으로 남을 수 있나. 그것 자체의 해석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특히 시문학은 복잡한 현실로부터 떠난 문학의 갈래가 아닌가. 서정시의 본질이 예술의 낭만적 기질(Bohemian temper)에 근거한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이런 점에서 1940년대 초 만주에서 간행된 [만주시인집]은 당시의 얼어붙은 현실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이 논문은 [만주시인집]을 가능한 역사적 사실과 분리시키면서, 작품 자체를 분석함으로써 이 시집의 중심적 시의식과 문학적 특

정 규명에 역점을 두려한다.

1940년대 초가 한국 문학사에서 어쩌서 특별한 연대인가란 문제는 이제 더 설명이 필요없다. 그러나 우리는 다행히 滿洲, 혹은 間島란 공간과 만나 거기서 귀중한 자료를 발견함으로써 1940년 초의 문학적 공백을 무리없이 기술하게 되었다.⁴⁾ [만주시인집] 연구 역시 이런 연구의 선상에 선다.

Ⅱ. 在滿朝鮮族文學研究의 문제점

1. 1940년대 滿洲移民文學 認識의 시각

한국인의 정서 속에 자리잡고 있는 간도, 만주란 지리적 공간은 특이하다. 그것은 그 곳이 지리적 공간이면서도, 단순한 지리적 공간이 아닌 민족의 어떤 정서와 맞닿아 있고, 간도와 만주라는 장소는 기실 지리적 위치와 범위가 다른데, 문학작품에서는 동일한 의미로 나타나기 때문이다.우리가 잘 아는 민요에 <신아리랑>이 있다.

… (전 략) …

밭있고 집있은 동무들아
어데로 가야만 좋을가 보나

괴나리 봇짐을 짊어지고
아리랑 고개로 넘어 간다

아버지 어머니 어서오소
北間島 별판이 좋다더라

쓰라린 가슴을 움켜쥐고
白頭山 고개로 넘어간다

4) 졸저, [한국문학과 간도](문예출판사, 1988) 참조.

감발을 하고서 백두산 넘어
북간도 별판을 해매인다⁵⁾
... (후 략) ...

이 민요의 기본 시상은 불만스런 현실을 박차고 나가려는 시의식이다. 반도에서 내몰릴 형편에 놓인 동무들과 자식없는 부모에게 고향을 버리고 북간도로 오라는 권유가 3음보격 가락으로 직설화되고 있다. 붓짐을 지고, 감발을 하고, 아리랑 고개를 넘어 북간도 별판으로 오라는 내용이 가락과 무리없이 맞아 떨어진다.

짧은 가사이지만 일제강점기 조선의 심각한 사정과 그런 현장을 박차고 나와야 살아 남을 수 있다는 의식이 너무 선명하여 선동적이기까지 하다. 북간도는 망명지였고, 그 망명지에는 여차하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분노에 찬 동포들이 살던 곳이다. 감발을 하고서 북간도 별판을 해매인다는 말 속에 그런 노기가 도사리고 있다. 그러니까 이 민요에는 한 시대를 피압박민으로 살며, 어디론가 터져 나가야 했던 민족정서가 간도란 지역과 결합되어 있다. <신아리랑>이 아직도 우리들 마음에 절실히 와 닿는 것은 이와 같은 민족의 보편적 정서와 연결되기 때문이다. 한편 이 민요 속의 '북간도 별판'은 실제 북간도만이 아니라, 백두산 너머에 있는 넓은 별판 전부를 지칭한다. 그렇다면 그 땅은 만주가 된다.

간도는 보통 서간도, 동간도, 북간도로 구분된다. 서간도는 압록강과 송화강과의 상류 장백산 일대를 가리키며, 우리가 보통 간도라고 말하는 곳은 두만강 건너편 동간도를 지칭한다. 만주는 중국 동북부 지방, 심양, 길림, 흑룡강 삼성으로 된 면적 80만 평방 킬로미터의 대륙인데, 현재의 공식 명칭은 東北三省이다. 이렇다면 만주와 동북 삼성은 같은 공간을 지칭하는 다른 이름이고, 간도는 특히 두만강 건너의 땅으로 만주 대륙의 일부분을 가리키는 말이 된다. 이런 지역들이 한국문학 속에서는 막연히 간도, 만주로 불린다. 이 민요의 경우도 백두산 너머의 넓은 땅을 이것 저것 따지지 않고, 그저 북간도라 부르면서 그 곳이 신천지라고 깨우친다.

민요는 민중들 사이에서 자생된 노래이며, 민중의 심리를 거침없이 드러

5) <신 아리랑>, [향일민족서집](민족학교편, 1971), pp.64~65.

낸다. <신아리랑>에 나타나는 막연한 희망의 땅이 ‘북간도 별판’이란 말에 필자가 특별한 비중을 두는 것은 민요의 이런 특성에 근거한다.

백두산과 중국 사이에 놓인 넓은 대지 간도가 아버지 어머니를 모셔 올만큼 좋은 곳이란 인식은 당시의 보편적 정서로 보인다. 1937년에 발표된 池奉文의 소설 <北國의 여인>을 읽다 보면 그 도입부에 이런 지문이 나온다.

간도는 전부가 쌀밭이다.

간도는 전부가 기름진 땅이다.

그 넓은 기름진 땅에는 마음대로 농사를 지을 수가 있다.

한 해 농사를 지으면 삼년은 가만히 앉아서 얻어먹을 수가 있다.

몇 해 안가서 벳 백이야 못하겠느냐!

그렇게되기는 바라지 않았읍니다마는 너무도 절박한 생활이어서 뱃속이 좀 편할가 하여 떠나지 않았겠읍니까. 그래도 이번 길에는 밭 한 두 가리 논 두어 마지기 살 돈만 벌면 홍타령을 부르며 고향으로 돌아오겠다고 바라지 않은 것도 아니지요⁶⁾

두만강과 압록강 건너의 땅은 한반도의 네 배나 되는 평야이다. 전국토의 70%가 산인 한반도에 비하면 만주 천지는 그야말로 일망무제의 광야이다. 그런 광야가 無主空山이라고 믿었던 게 당시 사람들의 대체적인 생각이었다. 그래서 모두 만주나 간도를 동경했다. 소설 <북국의 여인>도 그런 모티프에서 출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소설은 한 일가가 논밭 팔아 간도로 왔으나 막상 오고보니 황야의 거칠고 단조로운 생활과 민절되도록 아픈 젊은 영혼이 위로 받고 살아 갈 방도가 없어 가장은 소금 밀매를 했고, 그런 禁物 장사를 하며 살려던 부부는 가난으로 아들을 죽이고, 부인은 겁탈을 당하고, 그런 인생유전 끝에 중국인의 소작농이 된다. 그러나 그런 남편은 지주 왕서방의 총애 맞아 죽는다. 이렇게 혈혈단신의 과부가 된 여인의 내력이 서간체로 기술되는 것이 이 소설이다. 최서해, 강경애로 이어지는 빈곤문학의 한 예라 하겠다.

6) 池奉文, <北國의 여인>, 조선문학, 1937.1~6, 閔玕基 편, (韓國流移民小說選集)(계명대학출판부, 1989), p.204.

사건이 비극으로 종결되는 점은 강경애의 〈소금〉과 별차이가 없다. 하지만 간도를 희망의 공간으로 생각하고 떠나는 점은 〈신아리랑〉의 주제와 같다. 특히 주인공 스스로의 선택이 그러하다. 1930년대 중반 간도이주의 한인인 거개가 일본의 정책에 의한 것이란 사실과 연관지워 볼 때, 고려해야 할 내용이다.

간도를 살만한 곳으로 생각하고 살 길 찾아 떠난다는 문학적 소재는 李光洙의 〈流浪〉에서부터 나타났고, 安壽吉의 〈北鄉譜〉에서 끝났으니⁷⁾ 간도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일제강점기 전기간에 걸쳐 있던 문제였다. 그런데 이 문제는 다음과 같이 4가지 유형으로 나타난다.

첫째는 ‘북간도별판이 좋다더라’와 같은 소문을 따라 고향을 떠나는 유형, 둘째는 그렇게 떠나간 사람들이 〈북국의 여인〉처럼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되면서 다시 고국을 생각하는 유형, 셋째는 간도나 만주에서 새 고향을 건설하자는 유형⁸⁾, 넷째는 일본의 만주정책에 의해 이주하고, 그들의 보호하에 농업에 종사하는 유형이다.

이 네 유형 중에서 이 항에서 문제 삼으려는 것은 물론 첫번째 유형이다. 최서해, 강경애(두번째 유형) 등은 이미 오래전부터 많이 연구되었고, 안수길(세번째 유형)에 대해서도 근래에 상당한 연구성과가 있었다.⁹⁾ 네번째는 주제의 성격상 한국문학연구의 과제가 될 수 없다.

‘북간도 별판이 좋다더라’ 유형¹⁰⁾ 중에서 시적 주제가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작품에 〈만주메나리〉¹¹⁾가 있다.

7) 이광수의 〈流浪〉은 1927년 동아일보에 연재되다가 미완으로 그쳤고, 안수길의 〈북향보〉는 1945년 4월까지 [만선일보]에 연재되었다. 그리고 〈북향보〉에서는 어떤 간도이주 모티프도 나타나지 않는다. 간도내의 이주문제만 나타나고 있다.

8) 오양호, [韓國文學과 問島](文藝出版社, 1988), pp.114~138.(<北鄉譜研究> 참조)

9) 김윤식, [안수길 연구](형설출판사, 1994)

오양호, <安壽吉論>, 註 4)와 같은 책, pp.41~66.

崔景鎬, [安壽吉 研究](형설출판사, 1994)

10) 제1유형인 민요 〈신아리랑〉과 유사한 포에지, 즉 ‘아버지 어머니 어서 오소/북간도 별판이 좋다더라’를 논술의 편의를 위해 ‘북간도 별판이 좋다더라’ 유형으로 명명한다.

11) 崔壽福, <民謠 滿洲메나리>, [在滿朝鮮人通信], 47·48 合作號(康德 5年(1838.3月), p.40.

비개인 하늘에 오색이영농
거츠를 이강산에 새봄이왔네
아무렴 그러치 그러쿠말구
봄마지 나서는 만주라네
× ×

오늘은 재—스넘어 박첨지생일
내일은 압마울 탄실네잔치
아무렴 그러치 그러쿠말구
날마다 명절날 만주라네
×

장작불 피우고 허리긴—밥
벼한섬 팔으면 광목이한통
아무렴 그러치 그러쿠말구
수심이 엽는곳 만주라네
× ×

강냉이 한이삭 지게에노코
조이삭 잘라서 허리두루네
아무렴 그러치 그러쿠말구
시화나 년풍에 만주라네
× ×

지주님 위하기 성가시드니
우리네 방둥은 절만한다네
아무렴 그러치 그러쿠말구
별—유 천지는 만주라네
× ×

십리도 이웃집 서로반갑구
사돈에 팔춘두 친적이라네
아무렴 그러치 그러쿠말구
평화한 이강산 만주라네
× ×

고향이 그리워 흥난김서방
삼년이 못차서 되도라오네

註 강냉이(옥수수), 방동(지주)
崔壽福 作 〈만주메나리〉全文

이 시의 어법적 특성은 사용된 언어의 외연성이다. 민요가 보편적인 민중의 감정에서부터 출발한다고 보면 이것은 정석이다. 그러나 '비개인 하늘

에 오색이 영농'의 '오색', '지주님 위하기 성가시드니'의 '지주', '천만년 길길이 살고나 지고'와 같은 어구와 구절 해석은 단순하지가 않다. 이런 작품이 쓰여진 시대의 시간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으로 인하여 그 의미 해석을 한 시대의 불명예스러운 민족적 체험과 연관시킬 수밖에 없는 시대적 상황 때문이다.¹²⁾ 그러나 이 시의 표현은 그런 해석을 제기할 틈을 거의 주지 않는다. 그것은 첫째 모든 것을 풀어 버리는 농경적인 생성의 상상력이 시를 지배하기 때문이다.

'벼한섬 팔으면 광목이 한 통', '조이삭 잘라서 허리 두루네' 같은 시행에서 우리는 비로소 맞이한 풍요 앞에 한시름 놓는 이민의 현실을 본다. 이런 점은 후렴구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만주는 봄이고, 만주는 명절이고, 만주는 별유천지고, 만주는 평화이고, 만주는 팔자고칠 땅이고, 그래서 대대로 살만하다고 풍요를 예찬하고 있다. 만약 이것을 시대와 연관지우면 이 〈만주메나리〉는 가장 반민족적인 정서가 된다. 그러나 메나리는 그 본질이 격앙가류의 민요이다. 풍년이 들어 농부가 태평한 세월을 구가하는 노래가 '격앙가'이고, 〈만주메나리〉역시 그런 평화예찬의 농요인데, 이것을 만주란 부정적인 역사 이미지와 굳이 연결시킨다면 이 시의 내포가 반넘어 죽어 버린다. 시적 형상화가 반넘어 훼손되니 건강부회의 해석을 시도하자는 말이 아니다. 이 시의 자연스런 소리무늬를 따라 시상의 내포를 잡아 내자는 말이다.

문전 옥답은 신작로 되고, 쪽박의 신세가 된 조선의 이농민이 만주에서 넓은 땅을 얻어 중국인 지주를 비록 섬길 망정, 풍년이 들어 기뻐하는 모습만은 생생하지 않은가. 이런 점에서 '강냉이 한 이삭 지게에 노코/조이삭 잘라서 허리 두르네'나 '고향이 그리워 떠난 김서방/삼년이 모চার 되도라 오네'와 같은 시행은 오히려 한 시대의 거짓없는 민중사를 이야기해 준다.

12) 〈民謠 만주메나리〉가 발표된 [在滿朝鮮人通信]은 奉天에 있던 興亞協會에서 발행하던 월간잡지이다. 興亞協會는 在滿朝鮮人의 思想을 善導하고, 在滿朝鮮人의 地位와 生活을 向上시키고, 滿洲國內 他民族과의 關係를 公明히 한다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었다. 곧 '東亞의 大同의 結成'을 외치는 친일 기관이다.

잡지의 이런 근본을 따질 때, 〈민요 만주메나리〉가 서 있는 자리는 아주 분명해진다. 하지만 우리가 이 노래를 찬찬히 음미해 본다면, 우리는 어떤 선입관에서 벗어나 〈만주메나리〉를 작품 자체로서 읽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在滿朝鮮人通信] 1호 참조 (1936년 10월, 봉천)

만주 이민이 소재인 작품은 모두 고난사로 나타나야 하고, 고난을 극복하고, 만주를 제2의 고향으로 삼고 새로운 출발을 보여주는 이민사는 민족 정서와 배치된다는 논리로만 당시의 현실을 인식한다면, 그것 또한 상투적인 반응이다. 만주 이주의 모든 조선인이 그런 상황이었다면 현재 연변 등지의 동포들이 영위하는 자리잡힌 삶이 차지하고 있는 뚜렷한 민족의 자리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메나리’는 ‘미나리’이다. 다만 ‘미’를 ‘메’로 잘못 표기했을 것이다. ‘미나리’라는 어원은 ‘山有花歌’와 ‘산유해’·‘미나리’의 교섭으로 생성된 민요 형식이라고 한다. 이 형식의 민요에 대해 최초로 언급한 李在郁에 의하면 ‘미나리’는 山有에서 山遊로 山遊에서 旆노리로 旆노리에서 미나리로 訛傳되어 갔다는 것이다.¹³⁾ 그리고 이재욱은 미나리란 민요의 특성을 이렇게 규정하였다.

이상 제사실을 종합하여 상상하여 보건댄 百濟말엽에 盛唱되었든 山有花歌가 該地에 투입한 新羅軍人에 의하여 영남지방에 전래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본래 山有花歌는 망국의 怨聲 혹은 남녀상열지사 일 것이니 엇지 殘勝의 고기와 신흥의 기운이 횡일한 신라인의 心絃을 진동시켰스랴. 想像건댄 일시적 愛新性에 의하여 그 歌謠를 전래하였지마는 불원간 그 가사는 자연 도태를 당하고 山有花歌는 그 歌曲에 잊서서나 그 가사에 잊서서나 다시 말하면 그 형식 내지 내용을 약간 改粧하여 一方 산유해로서 발전 전래하였다고 간주하고 싶다. 현행의 산유해의 곡조가 극히 처연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심히 비통적인 것은 필자의 가정을 지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¹⁴⁾

이런 논문을 참고로 한다면 ‘메나리’는 百濟 遺民들이 불렀던 향수에 찬 평화회구의 농요가 된다. 태평성대의 평화롭던 시절을 회상하며 고향을 떠난 객지의 애환이 처연한 가락으로 나타나는 노래가 메나리란 농요의 시발이란 논증이다.

13) 李在郁, 所謂 [山有花歌]와 [산유해]·[미나리]의 交涉, 신흥 6호(1931), p.78.

14) 李在郁, 앞의 논문, p.76.

일제 강점기 조국과 고향을 떠난 遺民들이 만주든 러시아든 살면서 고향을 생각하며 아리랑을 불렀듯이, 메나리란 농요도 향수를 달래는 고향 노래로 애창되었을 것이다. 스스로 만주로 이민을 갔건, 아니면 일제의 이주 정책으로 갔건, 만주에 간 사람들은 대부분이 농민임이 사실이니 이 〈만주 메나리〉는 ‘미나리’를 부르던 농민의 노래임이 분명하다. 〈포천메나리〉를 발굴한 정동화는 ‘메나리’는 강원도를 비롯해서 경기도와 충청도 일부에서 불려졌는데 지역에 따라 ‘미나리’로 불려지기도 하나 ‘미나리’는 ‘메나리’의 발음이 잘못된 것으로 나뭇이름의 ‘미나리’와 구분되는 ‘메나리’가 옳은 이름이다. 그 뜻도 여러 가지가 있으나 아직 확실히 규명되지는 않았다¹⁵⁾는 설명을 한 바 있다.

이렇게 볼 때 〈만주메나리〉는 ‘미나리’의 한 갈래임이 확실하고, 가사의 내용 역시 〈포천메나리〉 등에 나타나는 ‘일천가지 벌려서면/에이 에이/삼천석이 솟는다네¹⁶⁾’와 같은 농경적 생성 의식과 일치한다. 따라서 〈만주메나리〉는 고향을 회상하며, 새로운 땅에서 맞은 풍요한 가을을 인간의 생성 본능으로 짚어 내는 가락이고, 풍요의 과장된 표현은 흙의 향속적인 창조력이 미간지를 찾아 온 그들을 버리지 않음에서 오는 기쁨에 기인한다고 봐야 한다.

민요는 민중의 소박한 감정을 표출한 노래이다. 메나리 같은 농요는 더욱 그러하다고 할 수 있다. 농민은 민중의 기층이고, 〈만주메나리〉의 경우, 표현의 진솔함이 민요의 그것과 동일하기 때문이다. ‘오늘은 재 넘어 박첨지 생일/내일은 앞마을 탄실네 잔치’는 평화의 구가이고, ‘쪽박의 신세로 건너 왔더니/임구성 영감이 머슴값다네’와 같은 표현은 아직도 가난은 여전하다는 인간사를 전한다.

그러나 올해는 먹을 것이 많아 졌다며 ‘아무렴 그러치 그러쿠 말구’라고 흥겨워하고 있다. 앞에서 인용한 바 있는 〈포천메나리〉의 ‘일천가지 벌려서면/삼천석이 솟는다네’라고 선창하면 ‘에이 에이’하는 후렴구가 뒤 따르는 그런 농요와 일치하는 형식이다. 이런 흥겨움은 단순한 삶의 반응이 아니라, 이제 그 지역의 땅에서 생의 원천 및 태반을 발견하고, 고난과 회생,

15) 포천 메나리(농요), 제6회 경기도 민속예술경연대회 우수 입상작 소개, 소개 팸플렛, 경기도 포천군 포천문화원, 1989.10.20, p.2.

16) 註 11)과 같은 자료, p.7.

이주와 정착, 유랑의 끝에서 뿌리를 내리는 인간사의 엄숙한 한 과정의 정서적 표출에 다름 아니다. 그래서 '임구성 영감이 머슴살이를 갔더라도 마음에 걸릴 것이 없다'고 했으리라. 이제는 풍요함이 기약되어 있고, 더 이상의 고난은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필자가 <만주메나리>에 유독 관심을 둔 이유는 이런 시의식 때문이다. 이 작품에 대한 이 이상의 독법은 지나친 해석이다. 시대적 분위기를 폭력적으로 걷어 내고, 비약하는 것이 아니라, 시어가 주는 자연스런 흐름이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2. 亡命文學, 移民文學의 개념 문제

민요 <만주메나리>를 중심으로 논의한 앞 항의 사실을 전제로 할 때,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만주·간도는 정착과 풍요, 생의 원천과 태반의 의미로 반응된 땅이다. 한편 이런 의식이 민요와 같은 현실주의 문학형식으로도 표출되었다는 점에서 40년대 만주에서의 한국 문학의 한 흐름을 1930년대 문학의 지속선상에서 가늠할 근거를 다시 확인하였다.¹⁷⁾

그러나 滿洲가 <만주메나리>에서처럼 격양가의 땅이기도 하지만, 그 땅은 영원한 내 땅이 아니라, 언젠가는 고향으로 돌아 갈 이방, 뿌리내리기에 토양이 맞지 않는다는 시의식이 이 북방 모티프 시들에 나타난다. 이런 망명적 시의식의 본질 규명을 위하여 일제 강점기를 치열하게 살았던 두 시인의 다음과 같은 북방 모티프의 시를 먼저 일별해 볼 필요가 있겠다.

① 봄, 여름

보낼 곳 없는 시악시의 애달픈 하소연이 長江을 흘러

칠백리 압록강 흐르고 흘러

이름 없는 沿邊계곡

애꿎은 물방아만 목매게 울리고

秋九月 한 그루 야국인들 어느 東山에 찾으리

기—고 긴 겨울 겨울은 눈으로 밝고 눈으로만 어둡고

17) 필자는 [韓國文學과 間島]에서의 논술관점은 1940년대란 시대의식과 수용 관계에 있는 문학성은 배제하고 1930년대 문학의 지속적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北國 영하 삼십여도

찾는이 없는 차—단 밤밤 꿈길도 아—런한 등빛과 함께窓틈에 얼어...

오호 創世의 정적이며 생의 고뇌여

그러나 말없는 산천을 흐르는 세월이여

여기 선발된 주인이 삼만 삼천여!

감가. 조. 귀리, 각양의 잡곡 朝夕도

그 어느 위대한 蘇米政治의 공적임을 들은 바 없고

근로 儉衣의 국민적 美風도

그 어느 현명한 두뇌의 하루 아침 長廣舌도 요구한 적 없고

때로 그들께 머—니 고향의 蒼然한

鄉愁를 되씹는 습성은 있다해도

아직 한번 그 系譜를 잃어진 祖上 속에

뒤져 찾는 흥미도 제것으로 한적 없나니

至純한 것이여 至良한 것이여

최상의 移民이여

정히 행복 여기 있어 可하고

정히 행복란 여기 있을 것

하기에 오늘도

큰 붓집 작은 붓집 들고 안고 지고 이고

다시 東北 異邦 胡地로

지나친 행복에 지쳐 떠나는 걸음들이 자못 數多다.

李燦, 〈北方圖〉 4~10면¹⁸⁾

② 東路方川 넓은 벌은

18) 李燦, 〈北方圖〉, 朝光, 1940.2, (尹永川 편, 한국 流民詩선집 1, 실천문화사, 1988, pp.56~58)

물도 많고
땅도 좋소
東路坊川 내 坊川아

西間島를 내가 왔네
西間島를 왜 왔든고
와서 三年
눈물이라

東路坊川
넓은 벌이
출렁 출렁 물이 닿고
건들 건들 바람이라

노래 노래
기심 노래
坊川벌은 웃음이라
잘살았소 잘살았네

東路坊川 친구네야
只今 어이 지내느냐
西間島를 내가 왔소

坊川벌에 금실물은
가을마다
豐年이라
西間島를 왜왔든고

金岸曙, 〈東路坊川 (民謠)〉 전문¹⁹⁾

19) 金岸曙, 〈東路坊川 (民謠)〉, [農民], 1932.9, pp.55~56.

인용시 ① ②는 둘 다 북쪽 만주벌로 이주한 사람들의 정착 과정을 소재로 하고 있다.

시 ①은 서사성이 중심 톤을 이룬다. 제1연(인용된 부분을 기준으로, 이하 같음)은 유랑의 끝에 살만한 땅을 이름없는 연변계곡에서 드디어 찾았다는 것이고, 제2연은 거친 자연, 거기에 맞서야 하는 이민의 운명이다. 제3연은 그 이민이 다름 아닌 '선발된 주민' 곧 강제 이민이란 사실을 말하고 있다. 제4연은 그렇지만 그 땅에는 일제의 통치권이 미치지 않아 농사가 순조롭다. 하지만 '그 어느 현명한 두뇌의 하루 아침 장광설'과 같은 표현 속에 야유가 도사리고 있다. 제5연은 만주가 사실은 옛적 발해나 고구려의 영토였는데 지금은 그것이 향수로만 남아 있단다. 민족의 운이 소진된 현실을 인정하고 체념하는 문맥이다. '……해도……없나니'의 문장 구조가 그러하다. 제6연은 人民이 행복해 질 수 있는 신천지가 이 땅이란 다. 人民이라는 말은 日本人이 즐겨 쓰는 國民이라는 말과 다르다는 점에서 제5연의 포제지와 연결된다. 곧 새로운 고향, 人民의 北郷이 이루어졌음에 흥분해 한다. 그러나 마지막 연은 수다한 人民들이 오지와 다른 지방 또는 오랑캐의 땅으로 다시 떠날 처지인 현실을 묘사한다. '지나친 행복에 지쳤기' 때문이다. 이렇게 마지막 연은 앞의 모든 시상을 뒤집어 엮는 구조이다. 특히 제6연, '至純한 것이여, 至良한 것이여/최상의 인민이여/정히 행복은 여기 있어 可하고/정히 행복이란 여기 있을 것'이란 흥분된 시구가 그렇다. 완전한 역설이다. 사람들은 왜 힘들여 닦은 새 고향을 버리고 오지인 북방, 이방·오랑캐의 땅으로 떠날까. 들어내놓고 말할 수 없는 현실이 들어난 현실보다 고통스럽고, 힘들기 때문이었으리라. 우리는 여기서 제4연의 그 '근로, 儉衣의 국민적 美風도/그 어느 현명한 두뇌의 하루 아침 長廣舌도 요구한 적없고'란 시행이 야유에 찬 현실 비판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다.

시인 李燦은 〈北滿洲로 가는 月이〉²⁰⁾ 〈눈 밤의 기억〉²¹⁾ 〈가구야 말려느냐〉²²⁾ 〈素描 北國漁港〉²³⁾ 등의 시편을 통해서도 1930년대의 移民문제를 신랄히

20) [대망], 풍림사, 1937.

21) [여성], 1937.1.

22) 조선일보, 1932.5.7.

23) [대망], 풍림사, 1937.

비판한 바 있다. 식민지의 현실을 개인사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 공동체의 운명적 차원에서 문제 삼는다.

막막한 만주 천지로 내몰린 이민의 무리가 시대적 상황과 연결되어 있고, 시의 공간적 배경 또한 한만국경지대이다. 국경지대란 민족의 역사, 굴곡 많은 우리 민족의 역사 현장이 아닌가. 필자가 들머리에서 〈北方圖〉를 서사적이라고 한 이유가 이런 데 있다.

시 ②도 서간도가 벌이 넓고, 농사가 잘 되어 잘 살았오 잘 살았네 하다가도, '서간도를 왜 왔든고'란 말을 불쑥불쑥 내치르는 품을 보면, 시 ①의 상황과 그 본질이 다를 바 없다. 물도 많고, 땅도 좋아 동로방천이 친구가 되었지만, 그것은 와서 3년 눈물 속에 땀의 결정으로 이루어진 것, 가을마다 풍년이 들지만, 그러나 그 풍년은 고향의 그것만 못하다는 정서이다. 서간도로 와야 할 현실이었지만, 그 서간도를 왜 왔던가를 구구절절이 후회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인용된 시 ① ②의 서정적 자아는 어느 땐가는 고향으로 돌아야 할 존재이다. 시 ①에서는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아 끊임없이 떠날 상황이고, 시 ②에서는 동로방천벌이 비록 친구같지만, 서간도를 온 것이 오지 않은 것만 같지 않단다. 滿洲移住가 모티프가 된 많은 작품들은 이와 같은 고향 회귀 의식이 바탕이 된 정서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런 논거를 토대로 필자는 1920년대에서부터 1945년 해방에 이르는 '간도·만주·연변의 한국문학'을 亡命文學, 移民文學으로 양대별하고자 한다. 이것은 1940년대 초기의 만주·간도의 한국문학이 시간과 공간적 배경은 동일하나 문학을 수행한 주체에 따라 移民文學, 문학이 형성된 공간의 사정에 의해 在滿韓國文學, 間島文壇, 延邊文學 등으로 달리 불리워지고 있기 때문이다.²⁴⁾ 이런 현상은 이 방면의 문학 연구가 불과 몇 사람의 연구자에 의해 전담되어 오면서 빚어진 결과이다. 곧 이민문학이란 문학을 수행한 주체를 민족문화적 차원에 그 근거를 두고 있고, 재만한국문학, 간

24) 白鐵은 [朝鮮新文學思潮史]에서 1940년대의 만주·간도문학을 공간적 기준의 시작으로 다루었고, 金炳翼은 [韓國文壇史](일지사, 1973)에서 간도문단이란 말을 썼다. 오양호는 [韓國文學과 間島] 등의 저서에서 移民文學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 蔡燦은 [在滿韓國文學](김은생, 1990)에서 재만한국문학이라 했다. '연변문학'이란 말은 일반적으로 현재의 연변 조선족 자치주의 조선족 문학을 지칭하는 말로 쓰인다.

도문단, 연변문학은 지역(공간)이 분류의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항에서는 먼저 용어의 개념을 간략히 세우고 그 논거 위에 본고가 과제로 삼는 1940년대 만주의 한국문학 문제로 넘어가겠다.

망명문학은 국권회복을 전제로 한 문학이다. 망명이란 말이 혁명의 실패 또는 그 밖의 사정으로 제 나라에 있지 못하고 남의 나라로 몸을 피하는 것이라 할 때, 일제 강점기의 한국인 중 국외로 탈출한 사람의 태반이 이런 인물들이다. 문학의 경우 李陸史, 尹東柱, 趙抱石, 李彌勅, 韓黑鷗, 安壽吉, 姜敬愛, [在滿朝鮮詩人集], [滿洲詩人集]에 시를 발표한 시인들의 대부분이 그런 예가 되겠다. 이런 문인과 작품 중 상당수는 그 주제를 고향 회귀 내지 고향을 상실하고 혹독한 생존 조건이 주어진 타국에서 체험한 실향의식과 유망화 되는 현실을 문제 삼는다. 이 밖에 崔曙海의 〈故國〉, 韓雪野의 〈과도기〉, 許俊의 〈잔등〉, 安懷南의 〈鐵鎖 끊어지다〉, 李箕永의 〈대지의 아들〉 〈신개지〉 속에는 만주 등지를 떠돌다가 귀향하는 모티프 또는 에피소드가 자주 나타난다.

그 대표적인 예가 조포석의 〈洛東江〉이다. 이 소설의 주인공 박성운은 낙동강 하구인 구포에서 농민의 아들로 태어나 보통학교, 도립간이 농업학교 등에서 근대적 교육을 받고 군청농업조수 생활을 하기도 했다. 그러던 중 3·1운동이 일어나자 그런 생활을 청산하고 민족 운동에 뛰어 들었다가 1년 반 동안의 감옥살이를 한다. 그 후 그는 고국을 떠나 5년 동안 서북간도, 연해주, 베이징, 상하이 등지로 전전하며 독립운동을 한다. 〈낙동강〉의 도입부는 이런 주인공의 귀향이 감동적으로 묘사되는 데서 시작된다.

[봄마다 봄마다
불어내리는 낙동강물
구포벌에 이르러
넘쳐 넘쳐 흐르네
흐르네—에—헤—야
.....]

경상도의 독특한 지방색(地方色)을 띤 민요(民謠) [닐리릿 조]에다가 약간 창가조를 섞은 그 노래는 강개하고도 굳센 맛이 띠어 있다. 여성의 음

색(音色)으로서는 핏기가 과하고 음률(音律)로서는 선(線)이 좀 굵다고 할 만한, 그러나 맑은 로사의 육성(肉聲)은 바람에 흔들리는 강물결의 소리를 누르고 밤하늘에 구슬프게 떠 들었다.

…… (5행 생략) ……

[천년을 산 만년을 산

낙동강! 낙동강!

하늘사이에 간들

꿈에나 잊을소냐

이칠소냐—아—하—야]

노래는 끝났다. 성운은 거진 미친사람 모양으로 날뛰며, 바른팔 소매를 걷어 들고 강물에다 정구며 팔로 물을 적셔보기도 하며, 손으로 물을 만지기도 하고, 찌어보기도 한다.

…… (5행 생략) ……

[로사! 니 팔 걷어라. 내 팔하고 같이 이 물에 정귀보자. 외.]

여자의 손을 잡아다가 잡은 채 그대로 물에다 정구며 물을 저어본다.

[내가 해외에 가서 다섯해 동안을 떠 돌아다니는 동안에도, 강이라는 것이 생각날 때마다 낙동강을 잊어본 적은 없었다… 낙동강이 생각날 때마다, 내가 이 낙동강의 어부의 손자요 농부의 아들임을 잊어본 적도 없었다… 따라서 조선이라는 것도.]

두사람의 손이 힘 없이 그대로 뱃사전 넘어 물 위에 축쳐져 있을 뿐이다. 그는 다시 눈 앞에 수면을 바라다 보며 혼자서 말로

[그 언제인가 가을에, 내가 송화강(松花江)을 건널 적에, 이 낙동강을 생각하고 올은 적도 있었다… 좋은 마음으로 나간 사람같고 보면, 비록 만리 밖을 나가 산다하더라도 그 같이 상심이 될 리 없으련마는…] ²⁵⁾

인간은 자기가 태어났던 장소에 대하여 본능적으로 애정을 느낀다. 동물들에게 나타나는 회귀본능과 같은 것이다. 이 場所愛(topophilia)는 고향에 대한 애정이 그 원형이라 할 수 있는데, 이것은 현실적 삶이 불행할수록 더 강하게 나타난다. 삶의 안식처가 더욱 절실하기 때문이다.

25) 趙明熙, 〈洛東江〉(建設出版社, 1946), pp.14~16.

〈낙동강〉의 남녀 주인공은 오랜 타향(타국)살이에서 자신이 태어난 물리적 환경과 정서적 환경에서 유리됨으로써 장소애의 상실이란 심리적 상처를 입었다. 그러나 귀향으로 원상회복된다. 위 인용문이 몽상적 동경으로 나타나는 것은 이런 연유에 근거한다.

3·1운동은 민족독립 운동의 권화였다. 하지만 그것이 실패로 끝나자 많은 민족주의자들이 뿔뿔이 해외로 망명했다. 민족운동에 대한 일제의 박해가 3·1운동으로 하여 겉과 속이 다른 식민지 정책으로 나타남으로써이다. 그래서 우리 민족의 1920년대는 박해와 망명으로 시작되었다. 〈낙동강〉은 이런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임화는 이 소설의 重刊辭에서 일찍이 이렇게 썼다.

流浪하는 우리 민족의 눈물겨운 記錄, 祖國에 대한 비길데 없는 愛情, 自由에 대한 놓을 수 없는 希願, 作者는 小說家이기보다는 더 많이 우리의 民族詩人으로서 이 모든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

抱石兄이 祖國을 떠난지 於焉 十八年, 그가 夢時間에도 그리든 祖國에 自由가 차저오려는 날, 아즉도 兄은 異域에서 도라오지 않았다. 하로 바빠 많은 收穫과 健康한 몸으로 도라오기를 바라는 것은 나 한 사람에 머무르지 않을 것이다.²⁶⁾

〈낙동강〉의 주인공 박성운은 귀향한다. 그러나 이 소설을 쓴 실제의 망명객 조명희는 해방된 조국에 돌아오지 못하고 1942년 타향에서 객사했다. 작가의 현실적 삶이 문학적 형상화로 나타났을 터인데 불행하게도 그 둘이 일치하지 못했다. 하지만 우리는 〈낙동강〉과 그 작가의 생애에서 亡命文學의 전형적 예를 본다.

민족운동에 신명을 바쳤으나 실패하고 실의에 빠져 이역을 헤매이다 병든 몸으로 귀향하는 모티프는 우리에게 큰 감동을 준다. 민족의 운명과 개인의 운명이 서사적 분위기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만주·서북간도·송화강과 같은 대륙적 이미지가 낙동강과 대립되면서 한 혁명가의 비극적 귀향이 극화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26) 林和, 〈洛東江〉重刊辭, 주 25)와 같은 책, p.108.

망명객들의 품 속에 숨겨나갔다는 金東煥의 〈국경의 밤〉(1924)도 비극적 역사에 부딪힌 한 개인의 원혼을 위무하는 모티프가 지배하는 시집이다.

北國에는 날마다 날마다 눈이 내리느니
灰色하늘 속으로 흰눈이 허부슬 때마다
눈속에 파묻히는 하—연 北朝鮮이 보이느니

아하, 無事히 건넌슬가
이 한 밤에 男便은
豆滿江을 탈업시 건너슬가?

이런 시의 발상은 분명히 어두운 역사와 침울한 계절과 국경지대의 서러운 민중사에 그 뿌리가 박혀 있다. 끊임없이 떠나는 시의식이다. 떠나서도 안주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돌아 올 수도 없어 거리의 객이 되어 고국과 고향을 생각한다. 〈松花江의 뱃노래〉 역시 그런 시이다.

여기는 松花江, 강물이 운다야
에잇 에잇 어서 노저어라 이 배야 가자
강물만 우두나
장부도 따라운다.²⁷⁾

이 밖에 李瑞海의 〈異國女〉(1937)는 거의 이런 류의 시들로 묶인 시집이다. 李陸史가 〈광야〉에서 '다시 천고의 뒤에 백마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라고 외쳤을 때의 그 서사적 비극성, 또는 尹東柱가 〈遺言〉에서

平生 외롭던 아버지의 殞命
감기우는 눈에 슬픔이 어린다.

27) 金東煥, 〈海棠花〉(大東亞社, 1942), p.145.

외딴 집에 개가 짖고
휘양찬 달이 문살에 흐르는 밤

이라 한 그 버려진 고향. 그러나 외로운 아버지를 찾아나서는 서정적 자아의 고향(귀국)회귀가 곧 김동환의 시의식이고, 이서해의 시의식이다. 이와 같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런 모티프를 일제 강점기 한국문학에서 찾을 수 있는 예는 허다하다.²⁸⁾

한홍구의 〈移民日記〉, 이미륵의 〈압록강은 흐른다〉²⁹⁾ 등도 이국에서의 실향의식과 유맹화되는 현실 속에서 고향회귀를 문제화한 작품들이다. 또 韓雪野의 〈過渡期〉도 간도로 떠났던 주인공이 4년만에 고향으로 돌아 오는 장면으로 시작된다.

망명문학은 이와 같이 작품에서 그 종결이 귀국형태로 나타나거나 그와 유사한 종결구조를 지닌다. 이런 점은 러시아 문학에서 솔제니친을 망명작가로 부르는 것과 경우가 같다. 솔제니친은 1974년 2월 시민권을 박탈당하고 쫓겨난 후, 계간지 [대륙]을 통해 계속 조국 러시아를 겨냥한 문학 활동을 했고, 그 끝에 드디어 귀국했다.(1994.9월) 러시아의 모든 문학사는 솔제니친의 이런 문학 행위를 두고 망명작가 또는 망명문학이라 부르고 있다. 조포석, 이육사, 윤동주, 이미륵, 한홍구와 같은 작가의 길이다. 다만 시대가 문명하여 솔제니친은 살아서 그의 조국에 돌아갔을 뿐이다.

이민문학은 이민간 사람들이 이민의 땅에서 생산한 문학이다. 망명문학이, 뿌리는 한반도이나 그 반도에서 뿌리를 내리지 못한 민족의 삶을 밖에서 문제 삼는다면, 이민문학은 그 뿌리를 이민 간 땅에서 내려 새 삶을 시작하는 이야기에서부터 시작한다. 趙明熙의 〈洛東江〉은 고향 구포별로 주인공이 돌아오는 장면부터 이야기가 시작되지만, 安壽吉의 〈北鄉譜〉(1944)나 창작집 〈北原〉(1943)에 수록된 거개의 소설들은 만주·간도의 개척민촌이 이야기의 시작이자 끝이다. 李箕永의 〈大地의 아들〉(1939)도 '지평

28) 尹永川 편, 한국 流民詩 I · II, 〈물위에 기약두고〉〈街頭로 울며 헤매는 자여〉에서 이런 시작품을 많이 찾아 낼 수 있다.(실천문학사, 1988)

29) 동아일보, 1994년 10월 31일(月)에서 이런 기사가 실렸다.

특파원 리포트, 獨교포들의 [나라사랑]

모두 3만명... 한국인답게 [2세]를 키우려 노심초사

"본받을 인물 만들자" 소설가 李彌勒 내세우기운동.

선과 한울이 맞부튼 들 가운데 느릅나무 한 주가 웃독섰다'는 말로 소설의 첫회가 시작되어, 그 대미는 '세사람은 음식점을 나와서 우선 북능(北陵)을 구경하기로 하고 마차를 집어탔다. …… 길림보다도 변화한 시가지를 마차 위에서 달리는 기분은 유쾌하였다'는 봉천시의 배경묘사로 되어 있다. 배경이 한반도가 아니고, 이야기의 줄거리도 滿洲開拓談이다.³⁰⁾

滿洲·間島의 이민문학은 1930년 동인지 [北鄉]에서부터 시작되었고, 작집 [썩트는 大地](1941) 합동시집 [在滿朝鮮詩人集](1942) [滿洲詩人集](1942) 등으로 이어지면서 문학적 위상이 잡혔다. 金炳翼은 <韓國文壇史>에서 다음과 같은 말로 간도문학을 기술한 바 있다.

활기 넘치는 滿洲의 亡命文壇은 오히려 京城文壇의 부러움을 사기까지 했다. [北原]이 출판된 것을 보자 친일문학의 총아이기도 했던 鄭人澤은 延吉에서 자기 창작집을 낼 수 없겠느냐고 문의해 왔고, 淸津의 [백] 동인들은 滿鮮日報에 작품을 투고해 왔다. 이미 이즈음의 滿洲에는 여행 유랑하는 문인들 말고도 姜敬愛, 玄卿駿, 朴榮濬 등 소설가, 毛允淑, 柳致環, 金朝奎, 金達鎭 등 시인, 극작가 金鎭壽 등이 살고 있었고 尹東柱, 朴啓周, 尹永春, 朴貴松 등 이곳 출신 문인들이 중앙문단에 진출하고 있었으며, 이들은 新京의 滿蒙日報과 용정의 間島日報가 통합한 국문지 滿鮮日報을 구심점으로 연결되고 있었다.³¹⁾

1930년대부터 만주·간도에서 활동한 문인 전부를 망명문인으로 보는 견해에는 동의할 수 없지만, 그 문인들이 형성하고 있던 대체적인 분위기와 그것이 하나의 문단적 성격이었다는 기술은 정확하다. 그리고 이러한 진술 속에는 間島文壇이 우리 민족에게는 1940년대초의 유일한 문학 공간이었다는 의미가 들어 있다. 白鐵이 그의 <朝鮮新文學思潮史> 現代篇에서 당시의 간도문학을 두고, '대륙을 배경한 現實的 作品들이었다'고 한 진술도 40년대 민족문학의 마지막 공간이 이 간도 문단이었다는 관점이다. 김병익의 시각은 이런 선행작업과 일치한다. 그렇다면 [北鄉] [썩트는 大地] [在滿朝鮮詩人集] [滿洲詩人集] 등은 어떠한 문학적 발상에서 시작되고 있

30) 영인본 原本 新聞連載小說 全集 3(깊은샘, 1987), p.143.

31) 北鄉, 제2권 1호(北鄉社, 1936.1), p.1.

는가. 이런 문제는 일반적으로 당해 문학을 묶는 책의 서문으로 나타난다. 이런 점에서 이 네 엔솔로지의 서문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① 인간은 삶의 지배를 받되 그 삶이 인간을 살이지못할 때 그 인간은 비로서 삶을 지배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그럼으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찾기 위하여 삶을 지배할 새로운 터전을 닦아야 할 것이다. 새해맞는 인간은 모름직이 황폐한 옛 터전에 새로운 터전을 닦힘으로써……!

삶을 저주하는 인간아!

팔에 힘을 주어 삼을 잡고 문혀진 성터로 나아가지 않으려는가?

새터를 닦끄러!

巖城³²⁾

② 나는 이 작품집을 읽어가는 동안에 그 대부분의 작품에서 ‘前期墾民’의 참담한 생활상을 回顧追憶하는 一種의 ‘移民受難記’ 가티도 느꼈다. 이러한 意味로 이 작품집은 滿洲開拓史의 序說이요, 먼 將來에는 잊지 못할 貴한 文獻의 價値도 가지게 되리라고 믿는 바이거니와, 한 편으로는 先驅者로서의 ‘墾民’ 開拓者로서의 先進을 위한 大辯이요 雪憤이며 同情에 넘치는 感謝의 文字이기도 한 것이다. 이 點으로 보면 이 一篇은 滿洲曠野의 진흙구덩이를 후벼파고 도다나왔다고 하기보다는 차라리 우리의 先住 開拓民이 피항을 흘려가며 파고 심그고 거두어서 뱉인 박아지를 채운 最初의 文化果라 할 것인가 한다. 나의 이러한 所懷는 넘어나 感傷의이라고 할지 모르겠으나, 읽어가는 동안에 字字句句에 그네 開拓者의 血汗이 서려운 듯한 敬虔한 느낌 업지 안헛든 것도 事實이다.³³⁾

③ 化粧이 매끈치 못하다면 울든 凍土를 가르치겠다. 목소리가 거칠다면 密林과 平原을 보이겠다. 이제 不幸하였든 黴-즈는 天衣를 입고 雪原우로 도로이카를 달려도 좋을 것이다.

32) 北郷, 제2권 1호(北郷社, 1936.1), p.1.

33)) 申瑩澈 編, 在滿朝鮮人作品集〈작트는 大地〉(滿鮮日報社, 1941, 新京特別市), p.2.

34) 金朝奎 編, 〈在滿朝鮮詩人集〉(藝文堂, 1942, 延吉), p.9.

南風이 불면 꽃씨를 뿌리겠노라.

눈이 나리면 설매에 무지개를 달겠노라.³⁴⁾

④ 우리가 滿洲를 사랑하는 心情은 이 형 이 나라의 大氣를 呼吸하고 살
어 온 우리가 아니면 想像하기도 어려우리라. 남이야 무어라 하거나 滿洲는
우리를 길러준 어버이요 사랑하여 안어준 안해이다.

이 나라의 單調로운 倣어한 地平線 紅柿가치 새빨간 저녁해 모양 새 업
는 우리 部落의 土城 머언 白楊나무 숨 적은 개울물 하나 하잘것 업는 돌덩
이 흙덩이 하나 하나에도 우리네 歷史와 傳說과 限업는 愛情이 속속드리 숨
어있다. ...

... (중략)

長白靈峰의 품미를 의지하고 살은 우리요 黑龍長江의 울타리 안에서 살
은 우리가 아닌가? 송화강언덕 杏花村에 情드리고 살고, 海蘭江 白沙場에
넋 이야기를 주으며 귀로 [오랑캐고개]의 傳說과 눈으로 [勃海古址 六官의
남은 자취 주춧돌도 늘근것](尹海榮氏)을 듯고 보고 살아온 우리다.

..... (중략)

시들지 안는 歲月을 차저와서 健全한 生의 塔을 싸흐려는 우리들의 祈願
이 이 형 이 나라의 한울과 벌과 개울과 密林과 바람과 部落 속에 서리어
있는 것을 이곳에 사는 사람으로 누가 是認하지 아니하랴?³⁵⁾

인용 ①의 요점은 '새로운 삶을 찾기 위하여 삶을 지배할 새로운 터전을
닥겨야 할 것이다' 라는 말이다. 동인지 [北鄉]이 간행되던 간도 용정은 고
국의 고향과는 수천리 떨어진 타관이다. 고향은 이미 빼앗긴 땅이라 쉬 갈
수 없으니, 여기서 새 터를 닦고 새 삶을 시작하자는 것이다. 문인은 열사
도 아니고, 義士도 아니다. 열사와 의사 같은 문인도 있다. 만주와 간도란
공간을 기준으로 할 때 滄江 金澤榮, 丹齋 申采浩, 이육사, 윤동주 같은 문
인이 그러한 예이다. 그러나 최서해는 살 길 찾아 간도까지 홀리간 유랑문
인이고, 안수길 역시 아버지 따라 만주로 간 사람이다. 유치환이나 박계주
도 반도보다는 '만주가 좋다' 기에 가족을 거느리고 그곳으로 건너갔다.³⁶⁾

35) 朴八陽, 〈滿洲詩人集〉(第一協和俱樂部, 1942, 吉林市), pp.2~3.

36) 柳致環, 〈구름에 그린다〉(신홍출판사, 1958), p.35.

고 했다. 문인들의 이런 행동은 이 문인들의 작품 앞에 놓인다. 移民은 말 그대로 자기 나라를 떠나 다른 나라의 영토에 이주하는 일이다. 동인지〔鄉〕의 뿌리가 내리고 있는 토양이 바로 여기다. ‘팔에 힘을 주어 삼을 잡고 문혀진 성터로 나아가지 않으려는가. 새터를 닥끄러’라고 외치고 있다.〔北鄉〕의 문학적 의미는 이런 반문 다음에 온다. 따라서 인용문 ①은 당시의 현지 사정을 가장 정확하고 솔직하게 드러내는 말이다.〔北鄉〕에는 매 호마다 투고작품을 모집한다는 광고가 나온다. 그런데 투고를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移民二世의 학생들이다. 그 중에는 이런 시도 보인다.

앞뜰에 종달새 비비배배
 뒷동산 헝국이 헝국헝국
 엽집 농부 소꿉고 밧가리 가니
 예헤라 봄이로구나 새살림이로구나³⁷⁾

여기 나오는 ‘새살림이로구나’는 이민의 새살림, 불안하던 형편이 좀 안정되어 가고, 자리잡혀 가는 형편을 말할 것이다. 이것을 당시의 시대상 또는 그 땅에 세워진 신흥국가와 연결시킨다면 그것은 지나친 해석이다. 인용된 구절이 현실의 한 단면을 순박하게 진술하고 있고, 그런 진술이 세상사를 외연으로 인식하는 소년의 눈이기 때문이다. 현실의 밝은 점을 본능적으로 바로 인식하는 것이 청소년기의 특징이라 할 때, 이런 외연성과 시대상을 연결한다면, 그것은 누가 봐도 무리이다. 성급한 일반론이기보다 귀납화의 단초가 되는 예이다.

새터를 닦는다는 의미는 ② ④의 인용문에도 나타난다. ‘선구개척민이 파형을 흘려가며 파고 심그고 거두어서 뷔인 박아지를 채운 최초의 문화과’ (②), ‘만주는 우리를 길러준 어버이요, 사랑하여 안어 준 안해이다’ (④)는 말이 모두 같은 의미이고, 새터를 닦는 意義의 강조이다. 이와 같이 移民文學은 그 일차적 특성을 자신들의 삶의 문제를 스스로, 그것도 현지 사정에 맞게 해결하고, 개척해 가려는 의지를 내용으로 한다.

인용문 ②의 중심을 이루는 단어는 ‘移民受難期’ ‘墾民’ ‘진흙구멍이를 후벼파고’ ‘개척자의 血汗’과 같은 표현이다. 이런 단어는 소설집〔썩트는

37) 尹貞淑, 봄(〈北鄉〉, 제2권 1호), p.17.

大地)가 이민개척사에 바쳐졌던 당시의 간도문단의 분위기를 잘 드러낸다. [썩트는 大地]에 수록된 작품들이 만주 정착을 위해 농업에 의존하고 있는 이주민들의 생활상을 문제삼거나 (<새벽> <暗夜> <秋夕>), 수답개척과 같은 문제가 아니더라도 이주민이 거친 자연을 극복하면서 자기 자리를 잡아 가는 과정(<流氓> <密林의 여인> <草原> <祭火>)을 이런 서문이 작품집의 특성으로 정확히 지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서문을 쓴 염상섭이 <萬歲前>이며, <三代>를 썼던 리얼리스트란 것을 우리는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인용 ③은 예언이다. '남풍이 불면 꽃씨를 뿌리고, 눈이 내리면 설매에 무지개를 달고 설원을 달리겠다'고 노래함이 그러하다. 물론 이런 현사가 시집의 내용과 얼마나 일치하고 있는가를 점검하면서 문학적 발상이 이민들의 이주 문제 관련되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1940년대초의 만주·간도는 무주공산의 황야였고, 그 광야는 인간사의 험악한 힘의 논리와 관계없이 우리 앞에 던져진 신천지였다. 그리고 그곳으로 이주한 사람들은 기적 같이 농토를 일쳤고, 마을을 만들었고, 2세를 낳았고, 학교를 세워 새 세상의 꿈을 키워갔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런 점은 만주·간도의 이민의 정사로 잘 나타나는 바이다.

이런 역사적 사실과 인용한 윗 글 넷이 모두 그 때 그 현장에서 쓰여지고 발표되고 읽혔던 엔솔로지들의 서문임을 감안한다면 작품 점검의 이전에 꼭 전거로 삼아야 할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의 확인으로도 저간의 이민문단의 사정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인용 ④는 40년대 초의 滿洲 事情을 어느 항보다 잘 설명해 주는 말이다. 만주국이 세워지고, 우리 민족도 그 나라의 한 구성분자가 된 것이 현실이지만, 우리는 그러한 시대상황을 우리 민족 나름으로 수용하면서 만주를 사랑하고, 그 땅의 의미를 찾으려 하고 있다. 이를테면 만주는 우리를 살아 남게 해준 아버지 같은 존재이고, 아내처럼 우리를 받아들였으며, 그 땅에는 우리 민족의 역사가 숨쉬고 있다는 것이다. 백두산(장백산), 흑룡강, 송화강, 해란강 등은 渤海와 高句麗 같은 우리 민족의 흥망사와 연결되어 있고, 그런 역사성으로 하여 '이 형 이 나라의 하늘과 별과 개울과 밀림과 부락 속에 서리어 잇는' 새 생활에 대한 기원은 결코 남의 문제가 아니라는 논리이다. 만주국의 국민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부끄럽게 생각지도 않는다. 그 땅에 대한 주인의식 때문이다. '오랑캐 고개의 전설' '발해고지 六官' 남은 자취'와 같은 말의 내포가 그렇다. 사실

발해나 고구려가 자리 잡았던 대륙의 땅을 염두에 둘 때, 만주는 낯선 황야가 아니라 한때 영화로운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가꿔졌던 낯익은 민족 대망의 땅이다. 우리 민족의 한 기질인 상무정신과 열린 큰 배포는 그러한 역사 속에서 형성된 성격이 아닌가.

사실 일제 강점기 만주·간도의 이민은 그 성격이 똑 같지는 않다. 일제의 식민지 정책에 의해 강제 이민을 간 사람이 있고, '북간도 별판이 좋다'는 말을 듣고 자기발로 찾아간 이민도 많다. 그러나 만주나 간도로 간 대부분의 사람들은 후자와 같은 자발적 이민들이다.

김택영으로부터 시작되어 신채호, 김창걸, 김학철로 이어지는 문인들의 행적은 독립군의 사상적 이민과 맥을 같이 한다. 최서해, 강경애, 안수길, 박계주, 서정주, 유치환과 같은 문인의 만주행은 단한 사회, 막힌 현실의 탈출구로 이루어진 문학적 이민으로 그 곳에서의 체험과 삶을 자기 나름으로 성육시켜 우리 문학사에 독특한 작품을 남기고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근거로, 필자는 1940년대 초 만주·간도에서 쓰여지고, 읽혀지고, 발표된 문학 작품들을 亡命文學과 移民文學으로 양대별하고자 한다.